

야시마 지역에서의 88 성지 순례

시코쿠는 불교 승려 구카이(774~835)와 인연이 있는 사원을 돌아보는 시코쿠 88 성지 순례로 유명합니다. 다카마쓰시에는 다섯 군데의 시코쿠 순례 사원이 있으며, 그 가운데 세 곳이 야시마와 그 근처에 있습니다. 이들은 이치노미야지 절, 야시마지 절, 야쿠리지 절입니다.

다카마쓰시 중심부에 있는 이치노미야지 절은 순례길의 83 번째 성지입니다. 다이호 연간(701~704 년)에 창건되어 구카이가 직접 본존을 조각했다고 합니다. 본당 가까이에는 작은 돌 사당이 있으며 그 안에는 약사여래상이 있습니다. 악한 사람이 사당 안에 머리를 들이밀면 돌문이 닫혀 머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.

그 다음인 84 번째 성지 야시마지 절은 야시마 산꼭대기에 있습니다. 포장된 순례길로 절에 오르는 경로는 가타모토역 부근에서 시작됩니다. 그 도중에는 천연 용수를 이용한 우물이 있습니다. 구카이가 갈증을 느끼고 기도를 올리자 물이 솟구쳤다고 하는 ‘가지스이’입니다. 그 이후 용수가 멎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도 합니다. 우물 옆에 있는 석비에는 구카이가 조각했다고 믿어지고 있는, 만물 전체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‘아(阿)’와 ‘흠(吽)’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. 순례길을 더 올라가면 여행자를 지켜주는 지장보살과 만납니다. 야시마지 절 입구에는 순례자가 방문했음을 기록하기 위한 방명록이 있습니다.

85 번째 성지인 야쿠리지 절은 야시마지 절에서 걸어서 약 2 시간 30 분, 약 5.4km 거리에 있습니다. 야시마에서 아이비키가와 강 너머 고켄잔 산 중턱에 위치한 야쿠리지 절은 걸어서 또는 산기슭에서 케이블카로 갈 수 있습니다. 절 이름은 구카이가 경내에 심은 여덟 그루의 밤나무에서 유래했습니다. 야쿠리지 절에서는 야시마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.